

# 전통과 현대 학문 사이서 불교학 방법론을 고민하다

한국불교학회, 1월 30일 동계워크숍

2000여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불교를 학문적으로 구성한 것은 서양 학자들이었고, 한국은 근대대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적 학문으로서 불교학을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불교학은 '전승의 불학'과 현대적 학문인 '불교학'이 혼재돼 있다.

인문학으로서 불교학의 위치를 되짚어보고 역사·문학·종교학·철학 등으로서의 불교학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1월 30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를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문학·역사·철학·종교학·예술학으로서 불교학의 방법론이 논의됐다.

## '불교학 방법론' 주제로 문학·역사 등 방법 모색

'불교문학의 지형과 방법'에 대해 발표한 김중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불교문학'을 표방한 논의는 객관적 자료의 대상화, 엄정한 논리의 전개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한때는 '한국불교어문학회'가 발족돼 <불교어문논집>을 발간했으나 9집(2004)을 끝으로 종간된 상태"라면서 "집체적 연구가 학술적 담론을 창안하기보다 개별 학자들의 서로 다른 관심 영역의 논의를 물리적으로 모아놓은 것 이상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과 학문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헌의 불교문학 관련 자료집, 대장경의 불교문학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번역하고 상호토론하며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불교 사학의 방법론에 대해 발제한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동아시아 범위에서의 사상사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종래 연구는 불교 사상사 연구가 아니라 불교 교리사 연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종합적인 역사와 사회에 밀착한 연구가 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불교사학은 동아시아 범위에서 사상사 일반의 흐름과 연관된 방법론의 추구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종교학으로서 불교학에 대한 논의도 눈길을 끌었다.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북미 대학을 중심으로 불교학은 'Buddhist Studies'로 불리지며 종교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소속이 옮겨가는 추세"라면서 "연구 방법도 인접학문들의 방법론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종교연구 흐름으로 볼 때 한국에서도 종교학과 불교학이 여러 인문사회학과 협력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지금, 다른 인접학문과의 협동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했다.

철학으로서의 불교학에 대해 발제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현대 불교학자는 '위학자(爲學者)' 이면서 '위도자(爲道者)'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철학이 '위학'이라면 철학함은 '위도'이다"라면서 "학문이 '물음과 배움의 길'이듯이 우리는 '위도자'가 되기 위해 '위학자'가 돼야 하며 문헌학과 해석학이 능한 '위학자'가 돼야 비로소 응용학과 실천학에 깊은 '위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는 1월 30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를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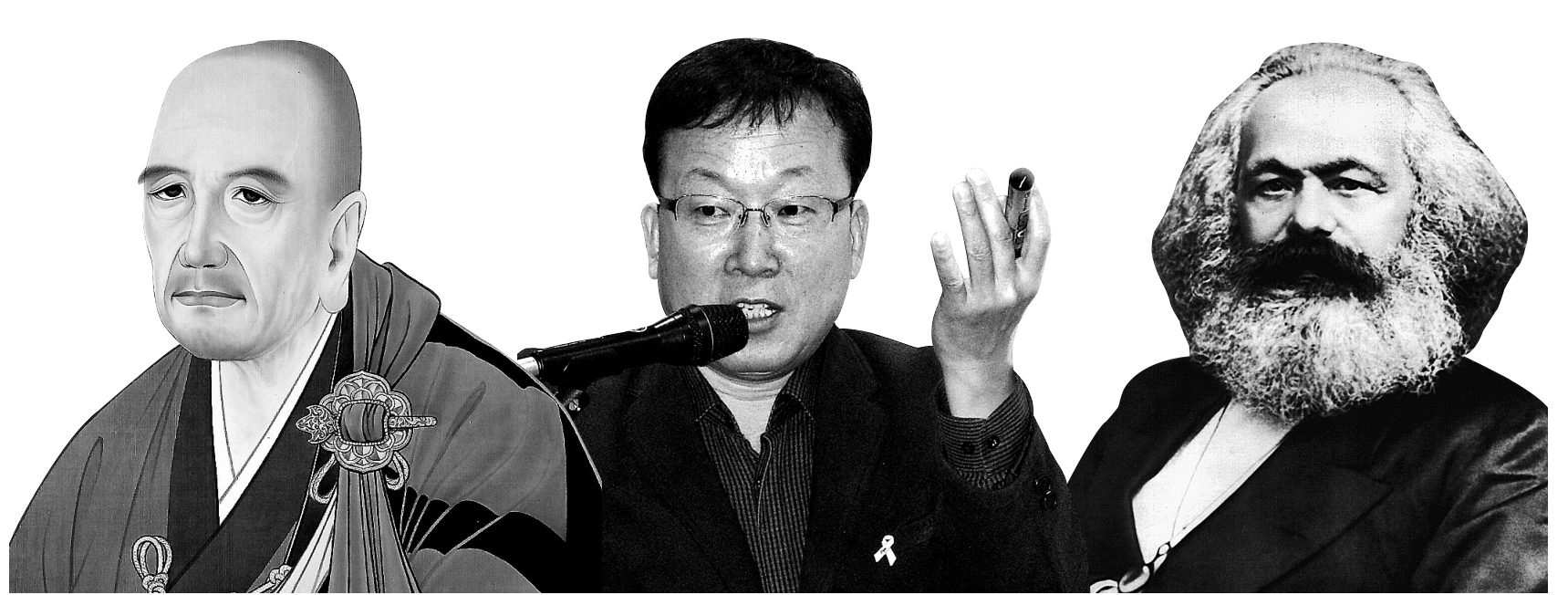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신라의 원효 스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칼 마르크스. 이도흠 교수는 원효의 화쟁과 마르크스 사상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아내고 있다.

# “자본주의의 한계 봉착... 새로운 대안 준비하라”

이도흠 교수,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발간

“2000만 노동자 중 약 100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절반이 월수입으로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자금을 장기불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920~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 이윤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탄생했고, 자본의 악마성은 더욱 강화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합니다. 단언컨대 자본주의는 30~50년 내에 망합니다.”

△환경 △폭력 △소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과학기술의 도구화 △근대성의 위기 △분단 모순의 심화 △육망의 과잉 △정보화사회의 모순 △가상성과 재현의 위기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서로가 깊은 연관을 맺고서 철나의 순간에도 서로 조건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의지하며 서로를 만들어주는 상호생성자(inter-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 교수의 2월 3일 열린 강의 내용 중 일부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에서 마련한 강연회는 이 교수의 최근 저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기념해 열린 것이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자신의 저서의 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진단하기 위해 마르크시즘을 택했고, 갈등을 아우르는 사상으로 원효의 화쟁을 가져왔다.

화쟁과 마르크시즘의 낯선 동행 마르크시즘으로 자본 모순 분석 화쟁은 자본·노동 아우름을 모색

환경·폭력·소의 등 위기상황 짚어 '눈부처-주체'로서의 삶 살아야 '이윤율 0%'오면 자본주의 붕괴 새 시대 맞을 패러다임 찾아야'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서양은 오랫동안 실체론적인 사유를 했고, 동양은 관계론적 사유를 확대해왔다. 두 가지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원효와 마르크스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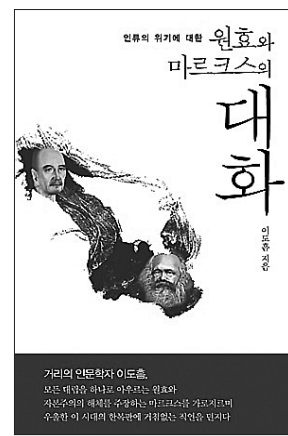
원효와 마르크스, 생경하고 낯선 조합이지만 이 교수는 두 가지의 사유를 절묘하게 묶어낸다. 원효와 마르크스를 통해 이 교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10가지를 거론·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becoming)와 '타자의 이쁨에 공감하며 자기 안의 인간다운 본성을 형성하는 눈부처-주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제안한다.

이 같은 상생의 삶에 대한 전제는 반드시 자본주의의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의 해체는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 지적한 현대사회의 위기는

실제 이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



력론·평화론 대(對) 변동어이(辨同於異)의 눈부처-차이론'에서는 20세기 이후 더욱 빈번해진 집단학살의 원인으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순전한 생각 없음'이나 스탠리 밀그램이 지적한 '상황과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집단학살이 타자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동일성의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일성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서로를 생성하는 상호생성자로서 눈부처-주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철학과 연대 등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화쟁위원장 도범 스님 방식의 '개시개비(皆是皆非) 화쟁론'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4대강, 용산 철거민, 밀양 송전탑 등 한국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은 '개시개비의 화쟁'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개시개비는 화쟁의 출발점일 뿐이며 관념상의 갈등 해결 방식”이라며 “초역사적인 화쟁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추상과 구체의 종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관념의 유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연대'이며 이를 통한 '공동체' 구성이다. 착취 당하고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의 고통에 연대한 그곳에 인류의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강의 마지막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세 명이 연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해체하고 화쟁상생의 세계를 이루고 싶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 14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자 격 : 식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 강 일 : 2016년 2월 26일(음력 1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 매 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식, 중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 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한파스님(학장스님께서 직접 내외전 강의하십니다.)
- 보조강사 : 수암스님(010-5488-7060)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055)343-2267~870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 연구보존회

## 무료 공개 강의 안내

사주를 잘 몰라도... 통변에 자신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완료!  
인터넷을 할 줄 알고 프린터 출력을 할 줄 알면 그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어 직접 경험해 보면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겐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  
성인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려주는 내용!

- 문, 이과 통합과 이 시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 컴퓨터에 생년월일만 입력하거나 설문응답 자료를 입력하고 인쇄 출력하는 방법만 알면 즉시 자료를 보고 상담이 이루어진다.

fi : »+» - ...»fi»

- ▶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그 순간 16장의 자료가 출력된다. (학생, 성인용)
- ▶ 1년 신수를 월별로 데이터화 한 자료가 5장 출력된다. (학생, 성인용)
- ▶ 설문응답을 마치는 순간 15장의 자료가 출력된다. (학생, 성인용)

“인문계 고3학생과 명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기준하여 완성된 프로그램”

- 진학상담교사, 학원운영자, 종교인(스님), 철학인, 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본 연구회와 함께 할 지사 모집



공개 강의 일자 : 2016년 2월 20일(토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장 소 : 진로적성힐링상담소 401호 [충신대역 5번 출구 200m] (방배동 950-1번지)  
연구소 : 010-5418-5972 / 강북지사 010-2146-1346 / 경기지사 010-8862-6624